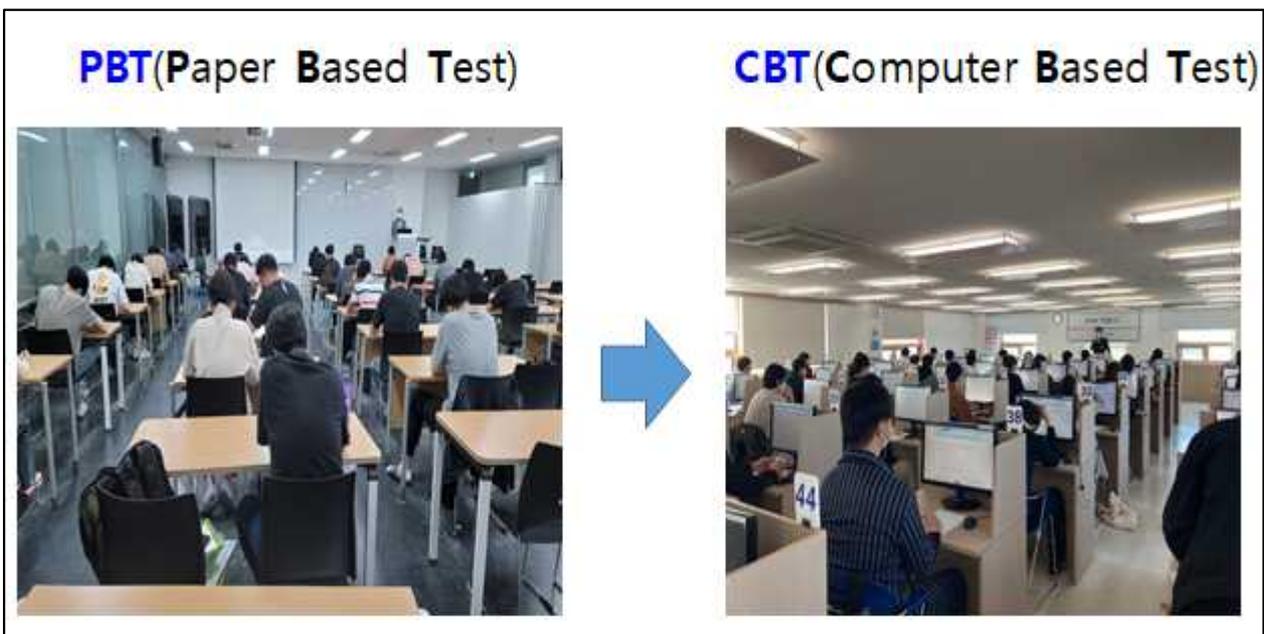
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2021. 7. 6.(화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	
<b>담당부서</b>	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	<b>담당자</b>	·과장 임종일, 사무관 류윤하, 주무관 심정찬 ·☎ (044) 201-4825, 4630
	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	<b>담당자</b>	·처장 박홍규, 부장 한기섭, 과장 윤현수 ·☎ (054) 459-7320, 7330
<b>보 도 일 시</b>		2021년 7월 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6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7일부터 철도운전·관제 면허시험 “디지털 방식 도입”

- 기존 지필시험 → 컴퓨터 기반시험(CBT) 전환...편의성·효율성 확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용복)은 철도 차량 운전업무종사자 및 철도교통 관제사 면허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기존 지필시험(PBT, Paper Based Test)에서 컴퓨터 기반시험(CBT, Computer Based Test)으로 전환하여 7월 7일(수)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


□ CBT방식에서는 시험문제의 배포, 채점, 결과집계 등 전 시험과정이 디지털방식으로 실시간 처리되어 시험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, 시험 종료 즉시 합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성이 대폭 확대 되었으며,

\* PBT 방식은 시험종료 후 시험합격 발표까지 통상 1주 정도 소요

□ 기존 시험방식에서는 1회 평균 700여명의 전국 응시생이 1개 지역 시험장소에 집합하여 응시하였으나, 이제는 서울, 경기 등 전국 8개 공단 지역본부에 시험장\*이 마련되고, 또한 시험 횟수도 연 8회에서 20회 이상으로 확대되어 응시생이 선호하는 시험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\* 서울(구로), 경기(화성), 강원(춘천), 대전, 전북(전주), 광주, 대구, 부산

\*\* <<https://lic2.kotsa.or.kr/railroad/main.do>>에서 시험장소·일시 확인 및 원서접수 가능

< 컴퓨터 기반시험(CBT) 방식 도입 기대효과 >

구 분		CBT 시행 전	CBT 시행 후
수험생	시험 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정된 시험일</li> <li>■ 시험 종료 후 약 1주 소요</li> <li>■ 시험용 사인펜 등 별도 준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험자가 시험 일자 선택</li> <li>■ 즉시 득점 및 합격여부 확인</li> <li>■ 사전 준비물 없이 응시 가능</li> </ul>
	합격자 발표		
	편의성		
시행 기관	문제 편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동 문제 편집</li> <li>■ 별도 채점 업무 수행</li> <li>■ 시험문제 인쇄, 시험지 운송 등</li> <li>■ 동일 시험문제로 부정 발생 우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산에 의한 자동 문제 편집</li> <li>■ 실시간 채점</li> <li>■ 인쇄 및 운송 비용 절감</li> <li>■ 개인별 시험문제로 부정 감소</li> </ul>
	답안 채점		
	비용 절감		
	부정 방지		

□ 교통안전공단은 CBT방식 도입 전, 지역별 교육훈련기관에 안내자료 배포, 모의 테스트(4회),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고, 시행초기에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례사항 등에 대비할 계획이며,

○ CBT시스템 운영상태, 지역별 응시현황 등 CBT시행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, 필요 시 시험장 추가 및 연간 시험횟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.

- 또한, CBT 시행에 맞추어 기존 단순 암기식문제 출제방식 외 철도 운전·관제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, 인적오류, 비상 조치에 관한 사례형 문제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,
  - 훈련단계부터 응시생들이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·기술의 습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, 향후 현장업무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과 인적실수에 따른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시험방식 개편을 통해 철도운전·관제자격을 준비하는 교육훈련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면허 시험에 준비할 수 있고, 디지털방식의 도입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”한다면서,
  - “앞으로도 전문성을 지닌 철도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류윤하 사무관(☎ 044-201-48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